

Portfolio

이서희
seoheele.artwork@gmail.com
@seohee_work

EXHIBITIONS

2024 일상의 변곡점_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갤러리와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한국

2023 여가_느슨한 상상, 갤러리와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한국

우리들의 공집합_뒤틀린 신호,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한국

납작해진 프로필, 옥빛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 양주시, 한국

성남 광주 대구 지역교류전 뜻밖의 만남 : 인카운터,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한국

2022 얼음~땡!, 갤러리와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한국

2022~2020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조선일보, 홍익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한국

2021 두서있음, 학교재아트센터,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투~게더 with you, 돈의문박물관마을I8,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한국

2020 릴레이디스플레이, 돈의문박물관마을I8,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한국

조형아트서울 PLAS-CONTEMPORARY ART SHOW, 코엑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9 무무MUMU, 플렛폼엘,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8 INTERLOCK, 돈의문박물관마을G3,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한국

돈의문이 열려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 서울, 한국

쓰레기 새로고침,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한국

2017 미묘한 소통, 갤러리와부, 경기문화재단, 서울, 한국

원더랜드 큐브, 갤러리와부, 경기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경기도, 한국

RESIDENCIES

2022~2023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한국

2018~2022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특별시, 서울, 한국

PROJECT

2024 주제중심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프로젝트 ‘별칭의 짝짓’(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공모지원_준비과정)

2017~23 청소년와우프로젝트(서울문화재단,1365자원봉사센터지원)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슬기로운 유기사물 나누기’(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원_더랜드_큐브’(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프로젝트 'L-loading: 느리게 읽기'(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주제중심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프로젝트 ‘낮설게 바라보기’(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제5회 서울숲소셜벤처엑스포_갈다 ‘프로젝트배기’ 초대작가(성동구 주최, 중소벤처기업부지원)

2020 예술로 힐링(서울예술치유허브 지원)

돈의문선(유튜브/서울특별시 지원)

2019~2020 &-가가동(서울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2019~2020 문화파출소강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2019 보호종료청소년통합자립지원사업(아산재단,마포구청지원)

K-HANDMADE FAIR 2019(코엑스B홀, 한국국제전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 지원)

예술로놀장(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8 더 힐링 스쿨(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가 노트

매일 걷는 길, 오르는 계단, 그리고 창틀에서 죽어있는 벌들을 관찰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들고 바라본 풍경이 뒤틀려버린 현재를 잃게 된 동기가 되었다. 눈앞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거대한 크레인과 회색의 건물들이 펼쳐져 있다. 얼마 전까지 무성한 잡초와 나무들로 뒤덮여있던 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을 알아챈 순간 나의 현재는 전복되고 산산조각 났다. 엄밀히 말하면 이 낯선 감정은 공포에 가깝다. 어제의 풍경이 내일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를 안고 오늘을 바라봐야 하는 불안함은 오늘을 잠식한 내일의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불안감이다.

대부분의 인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오늘을 살아간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동시대를 인류세라 명명하며 우리 스스로는 (기후 위기와 환경을 위한) 일상의 불편함과 미래의 공포를 교환하려 한다. 나 역시 인간의 이기적인 편리를 위해 남용했던 플라스틱과 비닐, 일회용품과 마주하며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solution)이 아닌,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할 공포에 대한 감각을 더 이상 인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공포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더 이상 오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 유통의 유재를 버릴 때의 죄책감, 대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비닐봉지, 페트병, 우산, 캔을 주제로 그린 패턴드로잉을 만들 때마다 조바심과 불확실성을 갖게 했다. 충돌이 발생한다.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것이. 피로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충돌은 그 충돌만으로 기록되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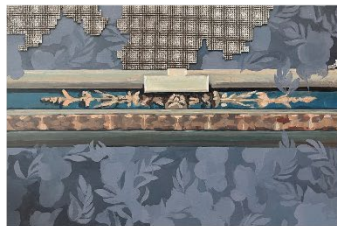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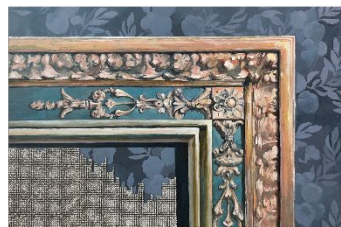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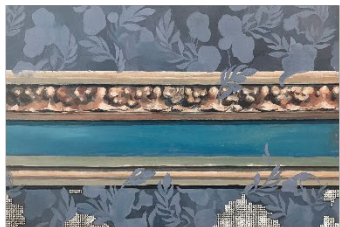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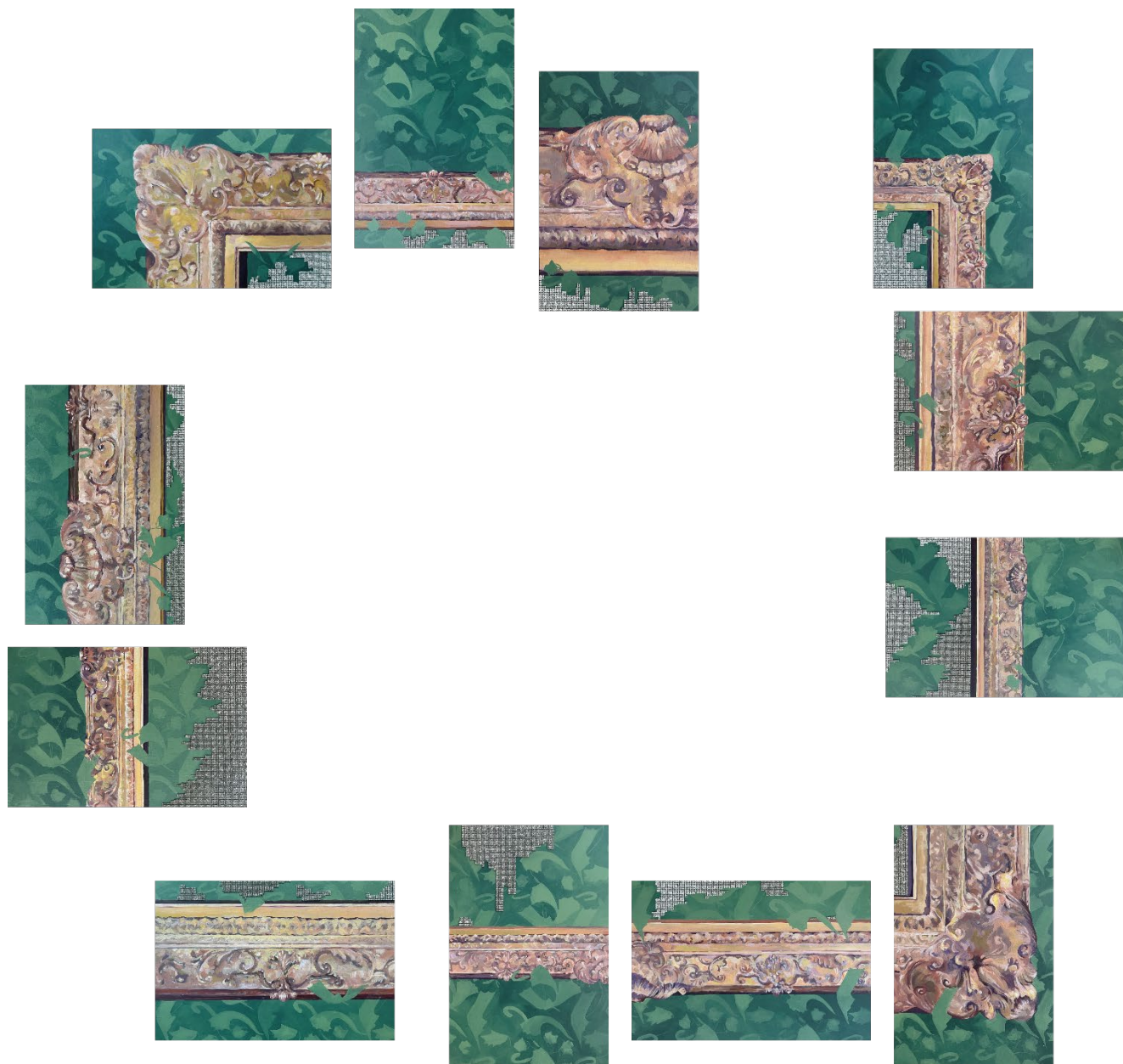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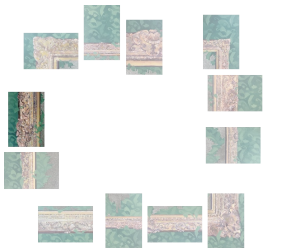
마하
2023
Acrylic on panel, cubic
140×1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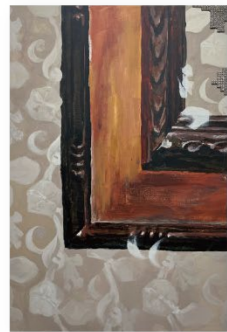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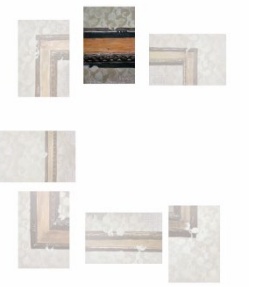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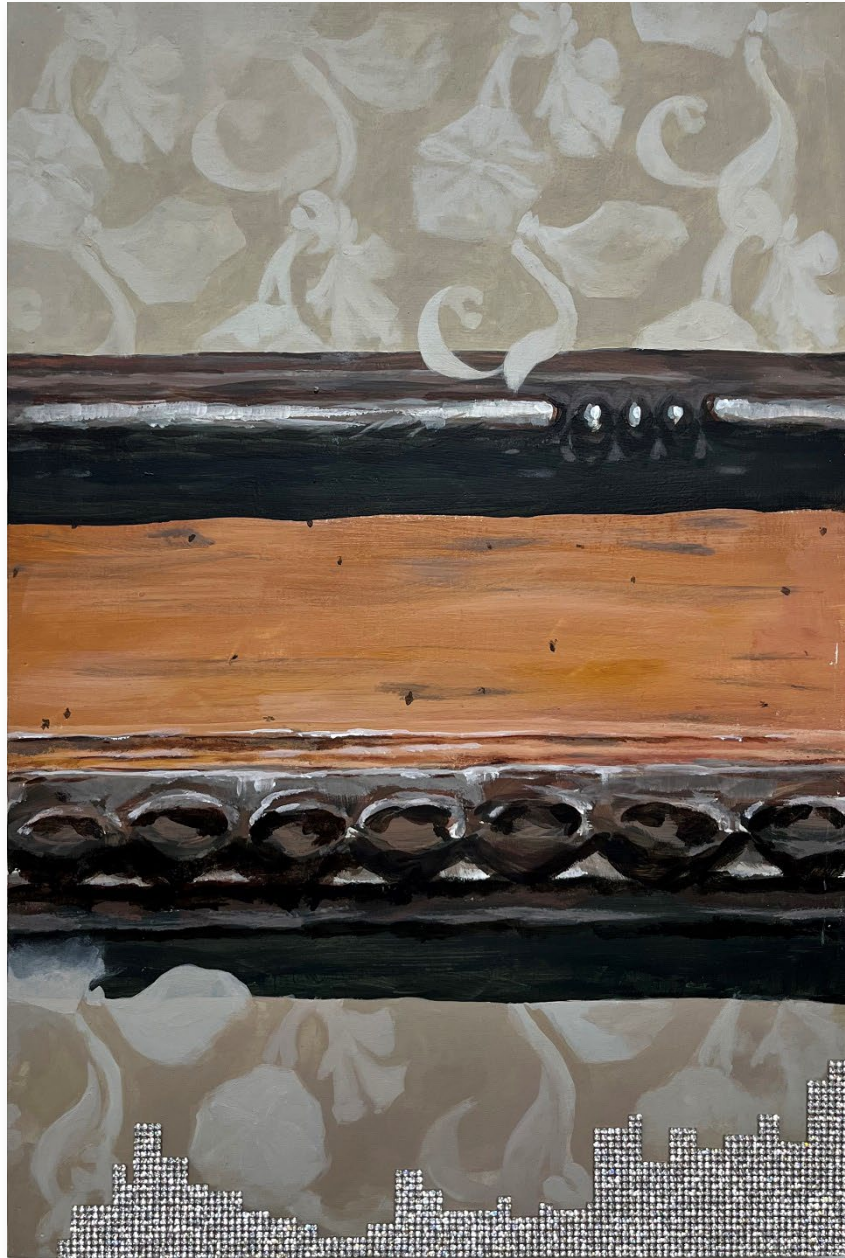
건초더미
2023
Acrylic on panel, cubic
190×180cm



detail



해바라기
2023
Acrylic on panel, cubic
140×130cm



detail



National Gallery
2023
Acrylic on canvas, cubic
130.3×97cm



Mauritshuis Museum
2024
Acrylic on canvas, cubic
130.3×97cm



void
2024
Acrylic on canvas, cubic
162.2×130.3cm



나, 우리, 사회에 대해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들의 흔적이다. 표피는 평면적으로 보여지나 박지를 통해 관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떼내 진다. 동시대를 읽는 우리의 태도는 보는 것을 넘어 선 촘촘한 표피 읽기의 과정이어야 한다.

*박지 - 닥종이의 종류로, 순지 보다 얇은 종이



불투명해진, 2022. 혼합재료, 가변설치



동시대,

드러나있는 수많은 경계들과 차별은 두려움과 상처,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일상에 녹아있는 보이지 않은 경계들은 조용히 서로를 등지게 하고 고립시킨다.

전시명 [두서있음]은 참여작가 서은정, 이서희의 이름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라는 글자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두서없음의 반대 상황으로써 일의 차례나 갈피를 잡아나간다는 의미를 담는다. 10여 년 전 그림을 매개로 호흡하던 유년기를 지나 어느덧 청년작가로서 활동하는 현재까지 서로를 지켜봐 준 두 작가는 각각의 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이 여러 차례 협업, 전시 기획, 워크숍 등을 함께 시도하면서 모색해 온 상생의 길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협업 프로젝트와는 그 결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두 작가가 만들어온 지속적이고 두터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놓인 뚜렷한 시스템의 경계들, 보이지 않는 경계들의 불편한 시선에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현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무엇이 이들을 고립의 상태로 몰아가는가?

이 전시에서 두 작가가 보여주는 것은 경계를 잇고 상생을 표방하는 균열의 작업이며 그것은 “경계”를 학습하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할 것이다. 이번, 이들의 상생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서로를 지켜보는 양방향 돌봄의 미학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_곽진영





이서희_경계를 마주하는 자세, 2021. Oil on canvas, 218.1x545.4cm



이서희(with서은정)_마주보기, 2021. 오브제, 센서, 가변설치(35×12cm, 80×35cm, 45×12cm)



Rendezvous_만남의 약속_‘당신의 걱정거리는 몇 cm인가요?’

오브제와의 거리에 따라 오르골의 축이 다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걱정거리에서 작품과 만나보세요.

1. 0cm~20cm : 밀접한 거리 (Intimate Space)_20cm 이하의 거리는 신체적, 정서적 정보를 즉시 느낄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_축이 멈춘다.
2. 20cm~1m : 개인적인 거리 (Personal Space)_양팔을 벌려 휘둘렀을 때 닿는 영역이다. 우리는 이 거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_축이 정 박자로 돌아간다.
3. 1m~1.5m : 사회적 거리 (Social Space)_사회적 거리에 해당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리_축이 느리게 돌아간다.
4. 1.5~ : 공적인 거리 (Public Space)_연설,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거리이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_축이 돌아가지 않는다.

(참고 문헌 Edward T. Hall 의 근접학(Proxemics))

Rendezvous
2021
Mixed medium
90×70×150cm

public project

Project **즐거_뜰**

프로젝트 ‘즐거_뜰’은 **즐거길(지름길)+뜰(정원)**의 합성어로
골목 사이사이 지름길이 만들어낸 작은 정원을 삶의 공간에 채워 넣는 프로젝트이다.

어원으로 말하자면 지름길에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지만
현대의 언어로는 즐겨 검색하는 장소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즐거_뜰’은 지역의 주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동네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찾은 지름길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 보여줄지 진행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결국 **지역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이다.



이서희_드로잉#1, 2022. 3D스캐닝, 가변크기



즐거_들
2023
훈합매체
가변설치



Project **즐거_뜰**

티키타카_즐거_더하기 _스튜디오모든사이

프로젝트 <티키타카>는
스튜디오모든사이의 모프로젝트인 <즐거_뜰>에서 파생된 명칭으로,
즐거 검색해 북마크를 설정해 두는 즐겨찾기의 형식을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티키타카_즐거_더하기/곱하기/나누기>로 진행되며
예술가,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신흥3동 주민들이
서로 즐겨 찾는 요소들을 공유하여
더하고 곱한 후 생성된 꿀팁 공유서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타자기 사용법 및 이전 작성물은 옆 서랍을 열면 볼 수 있습니다.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Project **즐거_뜨**

자판기 사용법

1. 동전과 칩을 교환한다.
(500원=1코인)
2. 교환한 칩을 자판기 투입구에 넣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힘차게 돌린다.
3. 캡슐을 돌려 열어오는 작품 열쇠고리, 머리핀 등을 꺼낸다.
4. 캡슐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읽고 피드백을 작성한다.
5. 작성한 종이를 다시 캡슐에 담고 수거함에 넣는다.

<KNOCK KNOCK>은

방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을 가볍게 두드려서 인기척을 내는 행위인 'KNOCK'를 의미한다.

주민들이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 쉽게 노크를 할 수 있는 연결 장치로 작동되길 기대한다.

자판기 사용법

1.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 들어가 1층 안내데스크로 간다.
2. 책상에 노크를 2번하고 코인을 받는다. (1인 1일 1개 무료)
3. 자판기에 코인을 넣은 후 손잡이를 360도 돌린다.
4. 캡슐이 나오면 열어 작품을 확인하고 놀란다.
5. 캡슐 안 피드백 종이의 질문을 보고 고민한다.
6. 고민한 내용을 종이에 신중히 적는다.
7. 캡슐에 담아 자판기 옆구리 구멍에 넣는다.
8. 두 명 이상에게 이 사실을 소문낸다.



<프로젝트 즐거_뜰>은 즐거길(지름길)+뜰(정원)의 합성어로 골목 사이사이 지름길이 만들어낸 작은 정원을 삶의 공간에 채워 넣는 프로젝트다. 어원으로 말하자면 지름길에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지만 현대의 언어로는 ‘즐거 검색하는 장소’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즐거_뜰>은 예술가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동네를 바라보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지형도를 변화시키고 그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로시루떡꾸러미>, <KNOC K>, <티키타카>, <우리들의 공집합>은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예술가’, ‘신흥동 주민’이 ‘즐거_더하기/곱하기/나누기’의 과정을 통해 레포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을 촘촘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스튜디오모든사이신흥공공예술창작소를 기점으로 반경 50m에 거주하는 11가구의 시민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각자가 찾은 지름길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 보여줄지 고민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신흥공공예술창작소 뒤편 주차장(유휴공간)에 신흥동 주민들의 일상적 이야기가 담긴 ‘즐거_뜰’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변화하는 신흥동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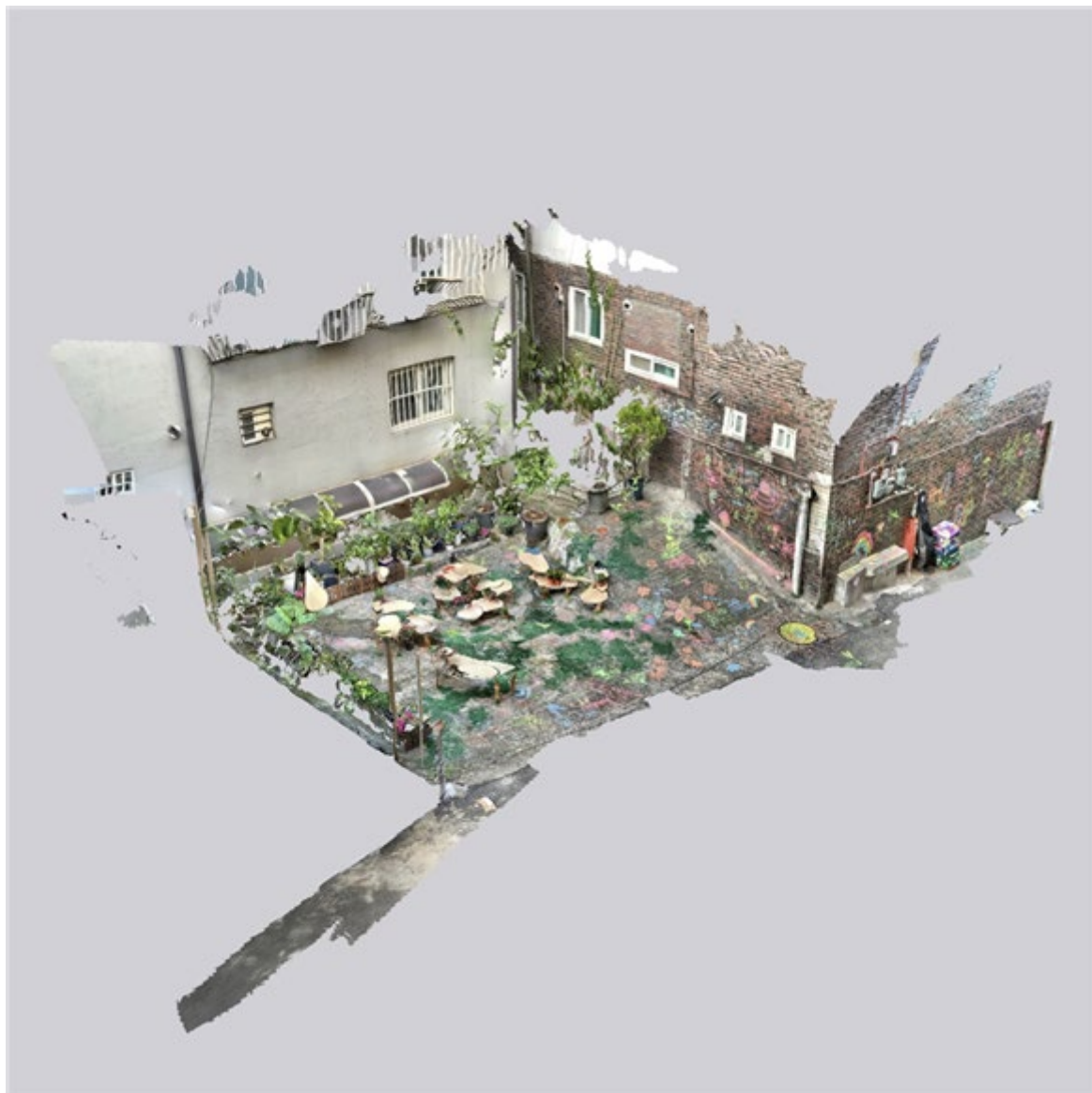
즐거_+×÷
2023
Digital textile printing on rSilk
가변설치



드로잉#1
2022
3D scanning
가변크기



드로잉#2
2023
3D scanning
가변크기



드로잉 #3
2023
3D scanning
가변크기